



하경택(장신대)

## 1. 들어가는 말

전도서는 전통적 지혜가 의심되고 의문시되는 시대의 산물로 평가된다.<sup>1</sup>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시대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전도서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본문 연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도서 가운데에서도 코헬렛<sup>2</sup>의 마지막 교훈을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 이 논문은 2021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1 위크스(S. Weeks)는 언어학적 특징과 역사적 언급과 다른 본문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저작연대를 넓게는 주전 500-150년, 좁게는 주전 300-150년으로 제시한다(S. Weeks, *Ecclesiastes. Vol. 1* ICC; t&tclark, 2020, 55-78). 전도서를 초기 헬레니즘 시대의 반정통주의 지혜로 평가하는 입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안근조,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서울: 동연, 2016), 89-113.
- 2 '코헬렛' (קְהֵלֶת)은 우리말에서 '전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이다. 이 낱말은 קָהַל(카할) 동사의 칼 분사 여성형인데, '수집가'(Sammelnde) 혹은 '불러 모으는 자'(Versammelnde)로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은 '지혜자'와 '회중 지도자'를 나타내는 직임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전 12:9 참조), 일종의 고유

이 본문이 코헬렛의 유언과도 같아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주인공의 유언을 담고 있는 창 49장; 신 32장; 33장; 수 23장 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필자는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코헬렛이 ‘젊은이’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의 의미를 살펴보고,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서가 전해주는 신학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때 전도서가 보여주는 신학적 특징을 현시대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이 시도될 것이다.

## 2. 논쟁점들

### 1) 제2세대의 저작?

퀸모스(M. Köhlmoos)는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에 관하여 중요한 논제를 제기했다.<sup>3</sup> 그것은 전도서 11:9-12:8이 전도서 1:2-11과 함께 전도서의 틀을 형성하며, 코헬렛 제1세대와는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는 ‘제2세대’(Zweite Generation)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전도서의 처음과 끝이 상응하는 전도서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나 ‘제2세대’의 편집이라는 논제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 우주와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1세대와 다른 저작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11:9-12:7)은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11장 9-10절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

---

명사로도 이해될 수 있다(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IHTHKAT; Freiburg im Breisgau: Basel: Wien: Herder, 2004, 41-42).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 낱말을 번역하지 않고 음역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3 M. Köhlmoos, *Kohelet. Der Prediger Salomo* (AT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76-89, 236-266.

들(2:24-25; 3:12-13; 3:22; 5:17-19; 7:13-14; 8:15; 9:7-10)과 연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도서 신학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는 점(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보라)에서 제2세대의 저작이 아니라 전도서의 ‘정점’을 보여주는 코헬렛 자신의 교훈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sup>4</sup>

## 2) 본문의 범위

전도서 연구에서 단락 구분은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이다.<sup>5</sup> 전도서는 단순히 문장들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 전체의 일관성을 가진 편집을 보여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편집자의 의도적인 편집과 본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sup>6</sup>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에 대한 단락 구분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sup>7</sup> 이러한 구분의 차이는 11장 7-8절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12장 8절을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서 드러난다. 이 중에서도 11장 7-8절의 위치와 의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이 본문이 앞 단락(11:1-6)에 대한 결론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뒤이어 나오는 단락(11:9-12:7)에 대한 서론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다.

4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Eunny P. Lee, *The Vitality of Enjoyment in Qohelet's Theological Rhetoric* (BZAW 353)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72-80; H. Spieckermann, "Jugend-Alter-Tod. Kohelets abschließende Reflexion: Koh 11:7-12:8", VT 70 (2020), 193-208.

5 전도서의 구성에 관한 입장은 "문장들의 모음집"(Sammlung von Sentenzen)과 "구성의 예술"(Kunst der Komposition)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는 전도서가 개별 격언들이 사교의 발전이나 연결 없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입장이고(K. Galling), 후자는 전도서가 의도적인 편집적 구성 속에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입장이다(N. Lohfink). 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46-51.

6 많은 학자들이 전도서의 구성에 관하여 부분적 편집 구성을 주장하는 중간입장을 취한다(예컨대, C.-L. Seow, M. Fox, T. Krüger, L. Schwienhorst-Schönberger 등). 특별히 박철우는 전도서의 편집에 반영되어 있는 삼단양식적 특징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예컨대, 2:1-26; 3:1-15; 4:1-16; 5:1-7/MT 4:7-5:6; 9:7-10 등). 박철우, "삼단양식적 관점에서 본 전도서 11:1-12:8의 구조와 내용", 『구약논단』 19/4 (2013.12), 230-264.

7 김순영은 본문 단락 구분의 견해를 다섯 가지로 소개한다(11:7-12:8; 11:1-12:8; 11:7-12:7; 11:9-12:8; 11:9-12:7). 김순영, "전 11:7-12:8의 모호성과 알레고리적 해석의 재고", *Canon&Culture* 8/2 (2014.10), 214 각주 17번.

필자는 11장 7-8절의 의미가 이어지는 단락의 서론적 기능보다 앞 단락의 결론적 기능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이 11장 9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11장 9절에 사용된 ‘즐거워하라’는 명령형은 12장 1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형과 함께 코헬렛의 교훈을 내용상으로도 아니라 형식상으로도 이전의 내용과 구별시킨다. 또한 11장 8절에서 기억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어둠의 날들’은 12장 1절에서 언급되는 ‘창조주’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들은 11장 7-8절이 뒷 단락보다는 앞 단락과 더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12장 8절은 코헬렛의 결론으로서 전도서 전체의 구조와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 마지막 교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1:9-10	젊음의 때에 즐거워하라
12:1-7	창조주를 기억하라
12:1a	명령: “창조주를 기억하라”
12:1b-6	인생의 종말 은유들
12:1b	‘즐거움’이 사라진 때
12:2-5	우주적인 심판 은유
12:6	등잔과 우물 은유
12:7	죽음에 대한 인간론적 묘사

### 3. 본문 해설

#### 1) 젊음의 때에 즐거워하라(11:9-10)

9절 젊은이여, 네 젊음의 때에 즐거워하라.

네 마음은 네 젊음의 날들에 네 자신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네 마음의 길들과 네 눈의 본 바를 따라 걸으라.

그리고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너를 공의 가운데로

(אֲשֶׁר־בְּרָצוֹן)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10절 그러므로 네 마음에서 분노(אֵיִם)가 떠나가게 하고,

네 몸에서 나쁜 것(רָעָה)이 지나가게 하라.

참으로 젊음과 검음이 헛되다.

이것은 코헬렛이 주는 마지막 교훈의 첫 번째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은 코헬렛이 교훈하고 있는 대상이 ‘젊은이’(בַּחֹרֶבַח)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잠언 1-9장에서 ‘내 아들’이라는 호칭과 대조된다.<sup>8</sup> 전도서에서 ‘젊은이’라는 호칭은 전도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코헬렛의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 잠언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미성숙한 상태의 사람을 암시한다고 한다면, ‘젊은이’라는 호칭은 완숙미를 가진 성인 남자를 떠올리게 하는 호칭이기 때문이다. 전도서에 따르면 그는 חֶבֶל(헤벨, ‘헛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생존의 환경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헤벨’에 관해서는 아래

8 잠언 1-9장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교훈’으로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엄재광, 「십계명에 비취본 잠언 5, 6, 7장의 신학적 의미」, 장신대미간행박사학위논문(2020), 110-117. 또한 잠언 1-9장의 형성사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R. Schäfer, *Die Poesie der Weisen. Dichotomie als Grundstruktur der Lehr- und Weisheitsgedichte in Proverbien 1-9* (WMA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251-269.

12장 8절에 대한 해설을 보라). 복잡 미묘한 세계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없으면 코헬렛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젊은이’ (바후르)라는 호칭은 특정한 연령층에 한정될 수 없다.<sup>9</sup>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의 연령만이 아니라 ‘젊은이’로 표상되는 상황의 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질 수 있다. ‘젊은이’라는 호칭은 특별히 생명을 가지고 기쁨의 순간을 누릴 수 있는 때를 맞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칭할 수 있다(6:4; 7:14; 9:11-12).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12:1)고 말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직 소망과 기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코헬렛이 말하는 ‘젊은이’가 될 수 있다.

코헬렛은 그러한 ‘젊은이’에게 말한다(9절). “네 젊음의 때에 즐거워하라.” 이것은 전도서에서 ‘즐거워하라’ (משׂח 동사의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는 권고가 직접 명령형 형태로 나타난 유일한 사례이다.<sup>10</sup> 코헬렛은 여기에서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젊은이’에게 기쁨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진술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강조된다. 여기에서는 마음이 주어로 나타난다(우리말 개역개정역에는 마음이 기쁨의 장소로 번역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네 마음은 네 젊음의 날들에 네 자신을 기쁘게 하라.” 이것은 기쁨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9전하반절에서는 상세한 지시사항을 통해서 앞의 내용을 강조한다. “네 마음의 길들과 네 눈의 본 바를 따라 걸으라.” 여기에서는 ‘마음의 길들’과 ‘눈의 본 바’가 대조된다. 마음과 눈은 몸의 두 기관으로 대변되는 두 가지

9 W. P. Brown, 「전도서」 (채은하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176. 원제는 W. P. Brown, *Ecclesiaste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0).

10 전도서에서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의 교훈이 나타나는 본문들은 다음과 같다: 5:1-9; 7:14; 8:2-3; 9:7-10; 10:16-20; 11:1-8; 11:9-12:7.

측면으로 이해된다.<sup>11</sup> 먼저 ‘마음의 길들’은 삶의 내적인 차원을 주목하게 한다. 인간의 삶은 내적인 동기와 어우러질 때 빛이 난다. 삶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성취감은 배가되는 것이다. 코헬렛은 ‘젊은이’에게 내적 동기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권고한다. 이와는 달리 ‘눈의 본 바’는 삶의 외적인 차원을 주목하게 한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외부적인 자극을 의미한다.<sup>12</sup> 이를 통해 코헬렛은 ‘젊은이’에게 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눈의 본 바’를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러나 9후반절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그러나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너를 공의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부분은 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이전 진술에 대한 ‘강화’로 이해될 수도 있고, 이전 진술에 대한 ‘수정’으로 이해될 수도 한다. 이전 진술에 대한 ‘강화’로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대상이 ‘즐거워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라고 이해한다.<sup>14</sup> 그만큼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이전 진술에 대한 ‘수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마음의 길들’과 ‘눈의 본 바’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문제가 된다. 민수기 15장 39절(“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

11 Ludger Schwienerhorst-Schönberger, *Kohelet*, 527.

12 크뤼거(T. Krüger)는 여기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6:9)과 대비되는 ‘실제적인 기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네 눈의 본 바’는 현실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1장 9절 전하반절의 의미는 ‘인생을 즐기되 이해를 가지고 또한 실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이다. T. Krüger, *Qoheleth.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4), 196.

13 이러한 교훈은 인생의 무상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인생의 무상성에 대한 인식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A. Lauha, *Kohelet* (BK; Neukirchen: Neukirchener, 1978), 215.

14 예컨대, A. Schoors, *Ecclesiastes* (HCOT; Leuven, Paris, Walpole, MA: Peeters, 2013), 791.

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의 말씀과 같이 마음과 눈을 따르는 삶이 방종과 욕심으로 흐를 수 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교훈하며 이전 진술을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3의 해석이 가능하다. 9후반절의 코헬렛의 진술을 이전 명령에 대한 ‘강화’나 ‘수정’이 아니라 ‘동기부여’와 ‘격려’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코헬렛은 ‘즐거워 하는 것’과 ‘마음과 눈을 따르는 삶’을 살리는 명령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 추동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이전 명령에 대한 축소나 수정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כּוֹסֵד)에 대한 코헬렛의 언급은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이자 ‘격려’의 말인 것이다. 그래서 브라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 명령에 대한 교정이 아니라 삶을 즐기라는 코헬렛 명령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한다.<sup>15</sup>

10절에서는 9절의 주제를 반복하며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젊은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때 몸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동시에 조망된다. 앞에서처럼 또다시 이중적인 관점이 제시된다. 코헬렛은 우선 내적인 차원에 주목한다. “네 마음에서 분노가 떠나가게 하라.” 여기에서 ‘분노’라고 번역된 כּוֹסֵד(카아스)는 ‘분노, 걱정, 불만족, 상처’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개역개정역에서는 ‘근심’이라고 번역하였다). 이것이 전도서에서는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묘사된다.<sup>16</sup> 여기에서는 ‘카아스’가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된다. ‘카아스’(‘분노’/‘근심’)는 영혼에 구멍을 내고 행복하

15 W. P. Brown, 「전도서」, 175.

16 <카아스>는 전도서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1:18; 5:16; 7:3, 9; 11:10). 7장 3절에서도 <카아스>와 <라아/로아>가 평행을 이루며 사용되고 있다. “분노(피로움)(כּוֹסֵד)가 웃음보다 더 낫다. 이는 얼굴의 나뭇잎(슬픔)(צַר)을 통해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카아스>(כּוֹסֵד/כּוֹסֵד)는 다양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성냄, 불안, 동요, 걱정, 근심, 피로움 등). 이것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잠 12:16; 27:3; 욥 5:2), 긍정적인 차원을 지니기도 한다(시 10:14; 31:10; 욥 6:2; 17:7).

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한다. 여기에서 코헬렛이 ‘분노’ / ‘근심’ 이 떠나가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과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말과는 다르다. ‘카아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몸에 침투하여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는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10전하반절은 몸의 외적인 차원과 관련된다. “네 몸에서 나쁜 것이 지나가게 하라.” 여기에서 ‘나쁜 것’으로 번역된 **הַרָּע**(라아)는 ‘죄악, 질병, 재앙, 괴로움’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서 ‘라아’는 여기에서 몸과 관련되어 우선적으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몸에서 나쁜 것이 지나가게 하라’는 것은 몸이 병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몸에 병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병이 몸에서 빨리 지나가게 하라는 것이다. 10전하반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바는 ‘건강’이다. 마음과 몸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고 건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것이 마음과 몸에 들어왔다면 그것들이 빨리 떠나고 지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후반절은 다시 ‘헛됨’ (‘헤패’)의 주제를 다룬다. “참으로 젊음과 검음이 헛되다.” 여기에서 ‘젊음’과 ‘검음’은 중언법(hendiadys)로 이해될 수 있다.<sup>17</sup> 두 가지 모두 ‘젊음의 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젊음의 때는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헛되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헤패’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12장 8절에 대한 해설을 보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젊음과 검음도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젊음과 검음이 헛되다”는 진술은 젊음을 비판하거나 그것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젊음의 때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바로 그 젊음의 때를 잘 보내라고 말

17 A. Schoors, *Ecclesiastes*, 794.

하는 것이다.

## 2) 창조주를 기억하라(12:1-7)

- 1절 그리고 너는 너의 젊음의 날들 동안 너의 창조주(בּוֹרְאֵי)를 기억하라.  
재앙(הַבְּרָכָה)의 날들이 오고,  
네가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이르기 전에.
- 2절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뒤에 구름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 3절 그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어져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다.  
그때 창문에서 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 4절 맷돌의 소리가 낮아질 때에,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날 것이며,  
노래의 모든 딸들이(모든 종류의 노래들이) 약해질 것이다.
- 5절 또한 그들은 높은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겠고,  
공포가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나무가 꽃을 피우며,  
메뚜기도 자신을 짐처럼 끌고 가며,  
(욕구를 자극하는) 케이퍼 베리가 터질 것이다.  
참으로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곡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둘러쌀 것이다.
- 6절 그때 은줄이 묶여 있지 않고,

금 그릇이 쭈그러지고,  
샘에서 향아리가 깨지고,  
수레바퀴가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7절 그때 먼지는 예전에 있던 것과 같이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서 코헬렛은 ‘젊은이’에게 두 번째 교훈을 다시 명령의 형태로 전달한다. “너는 너의 젊음의 날들 동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에서 ‘너의 창조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בּוֹרְאֵי**(보르레카)는 복수형이다. 이것은 장엄의 복수, 강조의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수 등 다양하게 해석된다.<sup>18</sup> 그러나 여기에서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 ‘아돈’이나 ‘바알’의 복수형을 써서 표현하는 것의 유비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또한 이것은 음성학적으로 **בו**(보르)를 떠오르게 하는데, ‘보르’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12:6 참조). 따라서 이것은 ‘창조주’와 ‘죽음’을 동시에 생각하게 만드는 언어유희라고 말할 수 있다.<sup>20</sup>

그렇다면 여기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코헬렛의 교훈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창조주에 대한 언급은 이전에 코헬렛이 말한 창조주에 관한 언급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분은 인간을 ‘올바르게’ 지으셨다(7:29).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5:17; 8:15; 9:9). 또한 그들에게 소유물도 주셨고(5:18; 6:2), 기쁨의 가능성도 주셨다(5:18-19; 9:8). 이러한 점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권고는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말이 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18 A. Schoors, *Ecclesiastes*, 794-796.

19 GK § 124k; BHQ, 110.

20 T. Krüger, *Qoheleth*, 197; M. Köhlmoos, *Kohelet*, 241.

분이시다. 문제의 근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문제의 종결자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자신의 젊음의 날 동안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sup>21</sup> ‘젊은이’는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며 그분이 내리실 평가가 무엇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훈은 무덤을 가리키는 ‘보르’를 떠올리게 하여 ‘죽음을 기억하라’는 권고로도 이해된다.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권고인 것이다.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 때가 있다.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종말이 이르기 전에만 가능하다. 코헬렛은 12장 1-7절에서 세 번에 걸쳐 ‘-하기 전’이라는 관용어를 사용하여 종말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교훈한다(1절, 2절, 6절).<sup>22</sup> 여기에서 인생의 종말은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된다.

첫째로, 인생의 종말은 1후반절에서 ‘재앙의 날들’과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라고 지칭된다. 두 가지 표현은 동일한 내용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재앙의 날들’은 다양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위의 10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רָעָה**(라아)는 ‘최악, 질병, 재앙, 괴로움’ 등 여러 가지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질병’과 ‘재앙’의 좋지 않은 것들을 동반한 인생의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는 ‘즐거움’(**שִׂמְחָה**)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종말의 때이다.

둘째로, 인생의 종말이 우주적인 심판의 은유 속에서 묘사된다. 2절에서

21 바톨로뮤는 코헬렛이 창조주에 대한 기억을 지혜의 시작으로서의 야훼 경외와 동일한 것으로 제시한다고 말한다. C. G. Bartholomew, “The Intertextuality of Ecclesiastes”, in: K. J. Dell (ed.), *Reading Ecclesiastes intertextually* (London: Bloomsbury, 2014), 229.

22 ‘-하기 전에’이라고 옮길 수 있는 히브리어 표현 **לֹא אֶפְתָּר וְעַתָּה**(아드 아쉐르 로)는 전도서에서만 발견된다. 이것에 대한 축약형인 **אֶפְתָּר וְעַתָּה**(아드 쉘로)가 미쉬나 히브리어에서 ‘-하기 전에’를 의미하는 관용어가 된다(A. Schoors, *Ecclesiastes*, 797).

는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종말을 묘사한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은 종말에 관한 묵시적 표현들이다(예컨대, 사 13:9-10; 욥 2:31; 암 5:18; 습 1:14-15).<sup>23</sup> 비가 온 후에는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 자연적인데, 여기에서는 구름이 다시 찾아온다고 말한다.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은유(Gerichtsmetaphorik)로 이해된다.<sup>24</sup>

34절은 어떤 집을 묘사한다. 우주적 종말을 의미하는 폭풍우를 맞을 때 모든 삶의 활동들이 사그라진다. 여기에서 죽음이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sup>25</sup> 이것을 폭풍우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으로 보기도 하고(M. Leahy), 황폐화되는 집에 관한 묘사로 보기도 하며(J. Sawyer), 죽음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집이나 공동체의 상태를 묘사하는 장송곡으로 보기도 한다(C. Taylor). 하지만 이 부분은 노쇠하여 죽어가는 인간의 몸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혀질 수도 있다.<sup>26</sup> 팔과 손(집의 지키는 자들)이 늙어서 떨기 시작한다. 다리(강한 남자들은)는 약해지고 굽어진다. 치아(뺏겨 가는 여인들)는 빠진다. 시력도 약해진다(창으로부터 보는 것). 그리고 귀가 어두워진다(길로 난 문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은유적인 이해와 알레고리적인 이해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인생이 맞는

23 김순영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종말론적 심상들이 ‘야훼의 날’을 연상시키는 예언자들의 언어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코헬렛이 개인의 죽음을 인류와 창조세계의 운명과 연결시킨다고 평가한다. 김순영, “전 11:7-12:8의 모호성과 알레고리적 해석의 재고”, *Canon&Culture* 8/2 (2014.10), 221. 시아우(C.-L. Seow)는 전 1:29의 ‘우주에 관한 시’와 상응하게 코헬렛이 전도서의 종결부에서 12:1-7의 ‘종말론적 시’를 통해 예언적 종말론을 연상시키는 급진적 개정과 함께 종말에 대한 비전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C.-L. Seow, “Qohelet’s Eschatological Poem”, *JBL* 118/2 (1999), 234.

24 Ludger Schwienerhorst-Schönberger, *Kohelet*, 533.

25 M. V. Fox,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Michigan: Eerdmans, 1999), 334-335.

26 Ludger Schwienerhorst-Schönberger, *Kohelet*, 535; 또한 M. V. Fox,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343-347. 전도서 12:2이하의 내용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탈군, 탈무드(b. Shab. 131b-132a), 미드라쉬, 그리고 이븐 예즈라(Ibn Ezra)에 이르기까지 유대교 전통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T. Krüger, *Qoheleth*, 198-199).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해석하는 면에서는 일치를 이룬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이 진술에 대한 코헬렛의 본래적인 의도일 수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절에서도 종말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sup>27</sup> 먼저 주어로 나타나는 그들이 누구인가가 분명치 않다. 그들은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인가? 또한 그들이 높은 것으로 인해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노인들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공포가 길에 있다고 하는데, 길이 의미하는 바도 모호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생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5절 후반부의 장례의 행렬이 지나가는 길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세 가지 대상(아몬드나무, 메뚜기, 케이퍼 열매)개역개정역에서는 ‘정욕’ )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반대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전형적인 계절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28</sup> 이른 봄(1월 말이나 2월 초)에 아몬드나무는 꽃을 피운다. 이것은 겨울 이후 새로운 생명의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렘 1:11이하; 아 2:10이하). 이른 여름(4월)에 풀이 자라면 메뚜기는 양분을 섭취하여 몸이 불어난 상태로 이동한다(암 7:1-3). 또한 한 여름에 완숙한 상태가 되면 케이퍼 열매가 터진다. 이것은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성숙의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

27 이 점에 대해서 A. Schoors, *Ecclesiastes*, 807-808쪽을 참조하라.

28 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534.

만 이것은 노쇠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아몬드 나무의 꽃은 흰 머리를 상징하고, 메뚜기의 이동은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케이퍼 열매가 터지는 것은 의욕상실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자의 견해는 자연과 사람 사이의 대조를 강조한다. 자연의 과정은 재생과 순환이 가능함을 보여주지만, 노쇠화 과정은 무기력과 소멸을 동반한 종말을 맞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는 이전 진술을 이어가며 동일한 어조로 인생의 종말 과정을 부각시킨다. 이럴 때 아몬드나무, 메뚜기, 케이퍼 열매에 대한 묘시는 이전의 노년에 대한 설명의 연속으로 이해된다.<sup>29</sup>

이러한 가운데 5후반절은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원한 집’은 무덤을 암시한다(시 49:12; 또한 겔 26:20 참조). 또한 거리의 애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행렬을 묘사한 것이다(렘 9:16-21; 22:18이하; 24:5; 암 5:16). 전도서 서두에 있는 ‘사람은 오고 가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1:4)는 언급에서는 인간의 행선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여기에서 비로소 인간의 행선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영원한 집’(בַּיִת עוֹלָם)이다.<sup>30</sup> 이것은 7절에서 묵적지로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죽음이란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31</sup>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단순히 끝

29 W. P. Brown, 「전도서」, 305.

30 시아우는 ‘영원한 집’에 관하여 이집트 문헌을 비롯하여 아람어와 랍비 문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용례를 제시한다(C.-L. Seow, “Qohelet’s Eschatological Poem,” 224-226). 그러면서 그는 이 표현이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반드시 그렇게만 결론지을 수 없다. ‘영원의 집’은 ‘영원이 있는 곳’으로 이해되고, 더 상세한 의미는 열려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슈피커만(H. Spieckermann)은 이 표현이 ‘영원을 사람의 마음에 주셨다’(3:11)는 언급과 더불어 ‘헛됨’의 주제가 부각되어 있는 전도서에 다른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다(H. Spieckermann, “Jugend-Alter-Tod”, 206-208).

31 이러한 점에서 죽음에 관한 바울의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

이 아니다. 현재와의 단절이지만 새로운 것으로의 이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죽음은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다. 그것은 단절이자 새 출발이다”(Der Tod ist Ende und Anfang, Abbruch und Neubeginn).<sup>32</sup>

셋째, 인생의 종말이 등잔과 우물에 대한 은유를 통해서 서술된다. 6절에 다시 세 번째 ‘하기 전에’(‘아드 아셰르 로’)라는 어구가 등장한다. 직역하면 연결이 자연스럽게지 않아 ‘그때’라고 번역하였다(개역개정역에서는 이 어구의 의미를 7절에 반영하고 있다). 6절에 대한 해석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두 개 혹은 네 개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sup>33</sup> 하나의 그림, 즉 두레우물에 대한 묘사로 보기도 하고, 맨 앞 두 개의 그림은 등불과 관계된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샘과 웅덩이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며 네 개의 그림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등잔과 우물을 묘사하는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필자에겐 마지막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등잔은 집 내부의 모습을, 우물은 집 외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름 등잔이 매달려 있는 은줄이 끊어지자 등잔이 부서진다(속 4:2이하 참조). 여기에서 은줄은 생명줄을 암시한다. 그리고 우물이나 웅덩이에 설치된 도르래가 부서진다. 그러자 거기에 달려있던 항아리가 깨지고 이어서 부서진 도르래가 떨어진다. 이 모든 그림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말 주제를 다루고 있다.

7절은 다시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이다. 이 진술은 창세기의 인간론을 배경으로 한다. 하나님은 이중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먼저 땅의 먼지로 인간을 지으셨고,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므로 생명체가 되었다(창 2:7).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여기에는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준

---

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후 5:1).

32 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540.

33 논쟁의 자세한 사항을 다음을 참조하라. 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535-6.

다. 인간의 죽음이 창조와 동일한 이중적 과정을 통해서 묘사된다(창 2:7에서 나 전 12:7에서 ‘먼지’를 의미하는 **אָפֶרֶת** 아파리가 개역개정역에서는 모두 ‘흙’으로 번역되어 있다). 먼지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sup>34</sup> 전도서 12장 1-7절에서는 죽음이 매우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 묘사된다.<sup>35</sup> 한편으로 그것은 궁극적인 어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는 생명의 은유가 함께 작용한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혼불멸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생명이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지속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출처(1절)와 미래(7절)가 분명하게 언명된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 4. 내용요약과 중심주제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은 전도서의 ‘정점’으로서 두 가지 명령으로 압축된다. 하나는 ‘젊음의 때에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명령은 이어지는 세부 교훈을 통해 그 의미가 설명되고 강조된다.

먼저 ‘젊음의 때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삶’을 살라는 교훈이다. 코헬렛은 이 기쁨의 삶이 ‘마음의 길들과 눈의 본 바를 따라

34 전도서 12장 7절과 창세기 2장 7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창세기의 ‘생기’((네사마트 하임)가 여기에서는 ‘영’((루아흐))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개념은 혼용 가능하다. 예컨대 창 7:22에서는 생명체를 표현하면서 **כָּל אֲשֶׁר נְשָׁמַת רֵיחַ חַיִּים בְּאָפֶרֶת**(콜 아셰르 네사마트 루아흐 하임 베 아파브)이라고 말한다. 직역하면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영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다. ‘네사마트’와 ‘루아흐’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창 2:7과 창 6:17; 7:15의 결합이다.

35 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538.

걷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9절). 마음의 소원과 풍부한 경험이 토대가 되어 이루어지는 기쁨의 삶이다. 여기에는 내적 동기와 외적 경험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기쁨의 삶이 가능하다는 코헬렛의 통찰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기쁨의 삶은 마음에서 '분노'가 떠나가고 몸에서 '나쁜 것'이 사라지는 건강한 삶이 유지될 때 가능함을 역설한다(10절). 이때 코헬렛은 이러한 기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하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강력한 추동장치를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공의 가운데로' 데려가신다는 사실과 젊음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일깨움이다. 이러한 언급은 이전 명령에 대한 축소나 수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교훈이 '젊은이'를 통해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며 실현되게 하기 위한 코헬렛의 '동기부여'이자 '격려'이다.

다음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교훈이다. 이 동행의 삶은 그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 시간과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이 제한된 때에 대해서 코헬렛은 '하기 전'이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하며 강조한다(1절, 2절, 6절). 이때 인생의 종말이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된다. 첫째로, 그것은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재앙의 날들'로 설명되며, 둘째로 우주적인 심판의 은유 속에서 묘사되고, 셋째로 그것은 등잔과 우물에 대한 은유를 통해서 서술된다. 이러한 창조주 기억의 삶은 인생의 종말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인생의 종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코헬렛은 죽음을 '영원한 집'으로의 여정이며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준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

## 5. 전도서의 신학: 모든 것이 헛되다?

8절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그 코헬렛이 말했다.

모든 것이 헛되다.

12장 8절은 전도서 1장 2절과 함께 전도서의 틀을 형성하며 동시에 motto 구절 역할을 한다.<sup>36</sup> 그래서 이 구절은 앞 단락에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도서의 신학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편집자의 의도적인 배치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전도서의 핵심 주장인 ‘모든 것이 헛되다’(헤벨/הֶבֶל)는 진술이 강조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진술의 의미를 종합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sup>37</sup> ‘모든 것이 헛되다’는 코헬렛의 말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해 아래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종말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sup>38</sup> 둘째,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해 아래의 삶에는 부조리와 불합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땅 위에서 경험하는

36 이 구절은 약간의 변형과 함께 전도서 1장 2절을 반복한다. 전도서의 이러한 구성은 전도서를 마무리 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자들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은 전도서의 끝을 읽음과 동시에 전도서의 처음을 읽는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전도서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를 음미하게 되고, 전도서에 대한 이해가 미진한 독자들은 다시 한번 전도서 읽기에 초대된다. T. Krüger, *Qoheleth*, 206.

37 전도서에 나타난 (헤벨)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을 보라. 하경택, “전도서의 (헤벨) (הֶבֶל) 연구”, 「어떻게 전도서를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89-98; 최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הֶבֶל)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1999년 봄), 197-226; R. Albertz, “הֶבֶל”, in: *THAT*, 467-469; K. Seybold, “הֶבֶל”, in: *Th WAT II*, 334-343; D. Ingram, *Ambiguity in Ecclesiastes*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6), 91-129.

38 이점에 있어서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는 다음 연구를 참조하라.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18/1 (2012.03), 82-104.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어둡기도 하고 ‘악한’ 때가 많다. 때로는 지혜도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헤벨’ (הֶבֶל)이라는 표현에는 ‘이게 뭐니까?’라는 코헬렛의 질문이 담겨 있다. 셋째,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참된 의지의 대상을 찾으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는 ‘창조주 기억’과 ‘하나님 경외’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다. 코헬렛은 해 아래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불합리가 많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손쉽게 해위의 삶으로 도피하지도 않는다. 그는 끝까지 해 아래의 삶에 대한 교훈에 집중하며,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위한 교훈에 천착한다. ‘모든 것이 헛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다. 아니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는 해 아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헛됨’과 함께 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한다. 그것의 핵심에 바로 ‘창조주 기억’과 ‘하나님 경외’가 있다.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과 더불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진술에 대한 고찰은 전도서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한다. 전도서의 신학은 다음 세 가지의 신학적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 의심과 질문의 신학

첫째, 전도서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신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코헬렛은 전도서 서두에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사람을 위한 유익이 무엇인가(יִתְרוֹן מֵעֵמֶל)?”(1:3) 이것은 전도서에서 코헬렛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1:2)는 모토(motto) 진술 바로 다음에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코헬렛의 실제적인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삶의 의미에 대한 코헬렛의 의구심이 깊이 배어있다. 하나님의 질서와 삶의 의미가 제대로 관찰되거나 경험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코헬렛의 문제의식이 담겨있다.<sup>39</sup>

이러한 코헬렛의 질문은 3장 9절에서도 만나게 된다. “일한 사람이 자가 수고한 것에서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מַה־יִתְרוֹן?)” 이 질문은 3장 1-15절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코헬렛은 앞 단락(3:1-8)에서 14쌍의 때에 대한 언급을 통해 삶의 모든 상황을 열거한다.<sup>40</sup> 그런 후 이 질문을 제기한다. 이 질문은 앞 진술에 대한 종합이면서 동시에 뒤이어 나오는 진술에 대한 도입부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코헬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에서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과 부정의 답변을 듣게 된다.<sup>41</sup>

코헬렛의 질문은 יִתְרוֹן(이트론)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יוֹתֵר(오테르)의 용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코헬렛은 6장 8절에서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지혜로운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מַה־יִוֹתֵר?)”라고 묻는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교는 앞서서도 다루었던 주제이다(참조, 2:13-17). 또한 6장 11절에서는 ‘헛된 것(הַבִּלְבָּל)을 많게 하는 일/말들(דְּבָרִים)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מַה־יִוֹתֵר?)”라고 묻는다. 코헬렛은 지혜

39 전도서에 나타난 코헬렛의 다양한 신학적 지평들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P. Enns, *Ecclesiastes* (THOTC; Grand Rapids, Mich.: W. B. Eerdmans Pub. Co., 2011), 117-135.

40 14쌍, 즉 28가지의 다양한 순간들은 완전수 7과 네 방위를 의미하는 4를 곱한 수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총계를 의미한다. 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247.

41 이 답변은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긍정의 답변은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יָפֵא) 만드셨다.”는 언급이고, 부정의 답변은 “또한 그는 영원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어,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찾아낼 수 없게 하셨다.”는 언급이다. 이것은 코헬렛의 서술방식인 “모순적 병치”(contradictory juxtapositions)의 예를 보여준다. C. G. Bartholomew, “The Intertextuality of Ecclesiastes”, 228.

문학에서 당연시 될 수 있는 지혜자의 유익과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일/말 (רָבִי)⁴²의 유익을 질문한다.⁴³

이러한 코헬렛의 질문은 ‘헤벨’이라는 표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헤벨’은 총 73회의 용례 가운데 38회가 전도서에서 사용되었으며, “바람을 잡는 것”(רָבִי רָבִי)⁴⁴이라는 표현과 함께 전도서의 중심주제를 나타낸다. 이 낱말은 해 아래에서 경험되는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한 코헬렛의 인식을 나타내며 코헬렛이 품고 있는 의문성을 그대로 드러낸다(위에서 언급한 ‘헤벨’의 두 번째 의미). 코헬렛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숙고한다.⁴⁵ 이전의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의심과 질문을 통해 철저히 검토하고 숙고하여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 2) 기쁨과 누림의 신학

둘째, 전도서는 기쁨과 누림의 신학을 보여준다. 전도서에는 ‘기쁨’과 ‘누림’을 강조하는 언급이 자주 나타난다. 그것은 ‘헤벨’에 대한 언급과 맞

42 전도서에서 ‘다바르’는 일과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중의적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코헬렛의 의도로 엮보인다(예컨대, 1:8; 8:1; 12:13). 전도서에 나타난 ‘다바르’의 용례와 의미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D. Dieckmann, “Worte von Weisen sind wie Stacheln” (Koh 12,11): eine rezeptionsorientierte Studie zu Koh 1-2 und zum Lexem rbd im Buch Kohelet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2), 192-240.

43 ‘요테르’(יֹתֵר)의 용례를 통해서 에펠로그가 ‘하나의 기획적인 작품’으로 의도된 전도서의 구조를 보여준다는 다음 연구를 참조하라. 오민수, “동사 구문론과 결합가 이론으로 살펴본, 전도서 12장 9-10절의 해석학적 조명”, 『구약논단』 24/3 (2018.09), 152-156.

44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영의 애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רָבִי (레우트)는 구약성서에서 רָבִי רָבִי (레우트 루아흐) 형태로 전도서에서만 7회 나타난다(1:14; 2:11, 17, 26; 4:4, 6; 6:9). 그리고 이것의 변형인 רָבִי רָבִי (라오손)은 동일한 구조로 2회(רָבִי רָבִי, 1:17; 4:16), 약간 변형된 형태로 1회 등장한다(רָבִי רָבִי, 2:22). ‘레우트’의 기본형은 ‘라아’(רָא) 동사인데, 이것은 ‘방목하다’(I), ‘교제하다’(II), ‘힘쓰다, 원하다’(III)의 뜻 가운데 문맥상 세 번째의 의미가 가장 적절하다(호 12:2 참조). 이점에 관하여 참조, HAL, 1180; A. Schoors, Ecclesiastes, 116-118.

45 전도서는 코헬렛의 다양한 경험과 관찰, 숙고와 반성을 포함하고 있는 책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신학’(theology from below)을 대표하는 지혜전통을 보여준다. W. P. Brown, 「전도서」, 48.

먹을 만큼 중요한 길목 곳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나타난다. 다음 여덟 개의 본문이 대표적이다(2:24-25; 3:12-13; 3:22; 5:17-19; 7:13-14; 8:15; 9:7-10; 11:9-10).<sup>46</sup> 코헬렛은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자신의 수고 가운데 자기 혼으로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2:24)고 말한다. 3장에서는 모든 때에 대한 고찰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12절). “나는 깨달았다. 그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기뻐하는 것과 좋은 것을 행하는 것 이외에 그것들 가운데 좋은 것이 없음.” 또한 3장 16-22절에서는 ‘하나님의 정의’(16-17절)와 ‘사람과 짐승의 운명’(18-21절)에 관한 주제를 다룬 후에 결론적인 언급으로 단락을 마친다(22절). “그러므로 내가 알았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 참으로 그것이 그의 몫이다.” 코헬렛은 자신이 선호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5:17-18(18-19)).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의 생명의 날 수 동안 그가 해 아래서 애쓴 그의 모든 수고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며 좋은 것을 보는 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그의 몫(מִלְּקָח)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며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신 모든 사람이다.”

코헬렛은 8장 15절에서 ‘기쁨’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언급한다. 지금까지는 줄곧 동사형태로 말했지만, 여기서는 명사형태로 ‘기쁨’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הִשְׂמֵנָה)을 찬양하였다.” 여기에서 ‘찬양하다’이라고 번역된 ‘샤바흐’(שָׁבַח)동사는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때도 사용된다(시 63:4(3); 또한 히트파엘형으로 시 106:47). 이것은 기쁨에 대한 코헬렛의 태도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코헬렛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견줄 만큼 기쁨의 삶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한 그는 평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

46 T. Krüger, *Qoheleth*, 1.

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해 아래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다.”

9장 7-10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것은 기쁨의 삶을 강조하는 일곱 번째 본문이기도 하지만, 2인칭 남성단수의 명령형으로 교훈하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up>47</sup> 코헬렛은 자신의 교훈을 듣는 제자에게 이렇게 명령한다(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הִתְעַבְבֵּךְ) 네 음식물을 먹고 좋은 마음으로(בְּלֵב-טוֹב) 네 포도주를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것과 좋은 것을 보는 것, 즉 즐거워하는 것이 병렬적으로 서술된 본문들(2:24; 5:17[18])과 달리 여기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하라고 권고한다. 전치사구의 표현방식을 통해 먹과 마시는 일상의 삶에 기쁨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코헬렛의 교훈은 이어지는 진술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9절). “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즉 그가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너의 헛된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생명(חַיִּים)을 즐기라. 참으로 그것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네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너의 수고 가운데서 누릴 너의 분깃이다.”

기쁨과 누림의 삶에 대한 강조는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11:9-12:7)에서 절정을 이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헬렛은 자신이 교훈하고 있는 대상이 ‘젊은이’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명령문을 통해 기쁨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한다(9전반절). “젊은이여, 네 젊음의 때에 즐거워하라. 네 마음은 네 젊음의 날들에 네 자신을 기쁘게 하라.” 그는 기쁨과 누림의 삶의 방식까지 교훈한다. 그것은 ‘마음의 길들과 눈의 본 바를 따라 걷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9후반절), 마음에서 ‘분노’가 떠나가고 몸에서 ‘나쁜 것’이 지나가는 건장한 삶이 동반되어야 함을 역설한다(10절).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코헬렛은 그러한

---

47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의 교훈에 관하여 각주 10번을 보라.

삶을 살도록 하는 강력한 추동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공의 가운데로’ 데려가신다는 사실과 젊음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이’가 자신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쁨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코헬렛의 ‘동기부여’이자 ‘격려’이다.

### 3) 신뢰와 경외의 신학

셋째로,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의 신학을 보여준다. 코헬렛은 ‘기쁨’과 ‘누림’의 신학을 펼치는 진술에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코헬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2:24)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선물’(3:13; 5:18)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기쁨과 누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헬렛은 다른 방향의 통찰도 제공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진술이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의 시종(始終)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코헬렛은 1장 15절에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펼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셀 수도 없다.”고 말한다. 매우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언급이지만,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코헬렛의 통찰이다. 이러한 통찰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언급된다. 7장 13절에서 코헬렛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거역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헬렛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더욱 큰 문제를 인식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3장 11절에서 코헬렛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또한 그는 영원(עולם)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어 사람이 하나님께

서 행하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찾아낼 수 없게 하셨다.” 이와 유사하게 8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다. 참으로 사람은 헤아려서 행해진 일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사람이 찾으려고 수고할지라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지혜로운 자가 안다고 말할지라도 그는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찰을 통해 코헬렛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3장 1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헬렛은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첨가될 것이 없고, 그것에서 줄일 것도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코헬렛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이유를 밝힌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신다.” 여기에서 코헬렛의 논리와 진술의도가 분명하게 인식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일의 시종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하나님 경외에 대한 언급은 여러 차례 나타난다(5:7; 7:18; 8:12-13).

이러한 하나님 경외의 삶은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에서 ‘창조주 기억’으로 대체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교훈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제공자이면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교훈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코헬렛의 신앙과 신학을 간파한 전도서 편집자는 후기에 서 12장 13절을 덧붙인다.<sup>48</sup> “모든 말/일(אָמַר וְעָשָׂה)의 마지막이 들려졌다. 하나님

48 트램퍼 룡맨은 ‘하나님 경외’의 의미가 코헬렛의 말(3:1-15; 5:1-7; Heb. 4:17-5:6; 7:15-18)에서와 전도서 후기(12:13)에서 다르게 사용되었다고 분석한다(T. Longman III, “The ‘fear of God’ in the book of Ecclesiaste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5/1 [2015], 21). 전자에서는 하나님 경외를 통해 하나님과의 접촉을

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참으로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 6. 나가는 말

전도서는 코헬렛의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다. 코헬렛은 말 그대로 ‘지혜자’ 이면서 동시에 ‘지도자’이다. 그는 다양한 차원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헤벨’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준다.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11:9-12:7)은 전도서의 ‘정점’으로서 전도서 신학의 요약과 종합을 보여준다. 그의 교훈은 단순하지 않다. 코헬렛이 경험한 세상만큼 복잡하고 난해하다. 하지만 그의 교훈은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이다. 그의 교훈은 부조리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직시하며 극복하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 코헬렛은 현실의 ‘복잡성’과 ‘나쁨’을 직시하면서도 삶의 ‘ 좋음’과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서의 삶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헬렛은 차원 높은 ‘영성가’이기도 하다. 그는 해 아래에서의 ‘헛됨’을 끌어안고 견디며 나아가게 하는 믿음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전도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명령한다. “네 젊음의 때를 즐겨 위하라.” 그리고 “젊음의 날 동안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한 것이고, 후자에서는 하나님 경외를 통해 계명 준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코헬렛과 전도서 편집자 사이의 연결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18/1 (2012.03), 82-104.
- 김순영, “전 11:7-12:8의 모호성과 알레고리적 해석의 재고”, 『Canon&Culture』 8/2 (2014.10), 207-238.
- 박철우, “삼단양식적 관점에서 본 전도서 11:1-12:8의 구조와 내용”, 『구약논단』 19/4 (2013.12), 230-264.
- 안근조,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서울: 동연, 2016).
- 오민수, “동사 구문론과 결합가 이론으로 살펴본, 전도서 12장 9-10절의 해석학적 조명”, 『구약논단』 24/3 (2018.09), 142-171.
- 최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הֶבֶל)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1999년 봄), 197-226.
- 하경택, “전도서의 <헤벨> (הֶבֶל) 연구”, 『어떻게 전도서를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89-98 (= 하경택. 『말씀안에 계신 하나님.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15, 240-252).
- Albertz, R., “הֶבֶל”, in: THAT, 467-469.
- Bartholomew, C. G., “The Intertextuality of Ecclesiastes”, in: Dell, K. J. (ed.). Reading Ecclesiastes intertextually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London: Bloomsbury, 2014), 226-239.
- Brown, W. P., 『전도서』, 채은하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원저 Brown, W. P. Ecclesiaste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0).
- Dieckmann, D., “Worte von Weisen sind wie Stacheln” (Koh 12,11): eine rezeptionsorientierte Studie zu Koh 1-2 und zum Lexem כֶּבֶב im Buch Kohelet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2).
- Enns, P., Ecclesiastes (THOTC;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Pub. Co., 2011).
- Fox, M. V.,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Michigan: Eerdmans, 1999).

- Ingram, D., *Ambiguity in Ecclesiastes*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6).
- Köhlmoos, M., *Kohelet. Der Prediger Salomo* (AT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Krüger, T., *Qoheleth*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Lauha, A., *Kohelet*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Lee, Eunny P., *The Vitality of Enjoyment in Qohelet's Theological Rhetoric* (BZAW;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 Longman, Tremper III, "The 'fear of God' in the book of Ecclesiaste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5/1 (2015), 13-21.
- Schäfer, R., *Die Poesie der Weisen. Dichotomie als Grundstruktur der Lehr- und Weisheitsgedichte in Proverbien 1-9* (WMA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 Schoors, A., *Ecclesiastes* (HCOT; Leuven, Paris, Walpole, MA: Peeters, 2013).
- Schwienhorst-Schönberger, Ludger, *Kohelet* (HThKAT; Freiburg im Breisgau; Basel; Wien: Herder, 2004).
- Seow, C.-L., "Qohelet's Eschatological Poem", *JBL* 118/2 (1999), 209-234.
- Seybold, K., "הַבְּלִי", in: *ThWAT II*, 334-343.
- Spieckermann, H., "Jugend-Alter-Tod. Kohelets abschließende Reflexion: Koh 11:7-12:8", *VT* 70 (2020), 193-208.
- Weeks, S., *Ecclesiastes*, Vol. 1 (ICC; t&tclark, 2020).

검색어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

전도서의 신학

의심과 질문의 신학

기쁨과 누림의 신학

신뢰와 경외의 신학

## A Study of the Theology of Ecclesiastes through the Final Lesson of the Qohelet (Eccl. 11:9-12:7)

Kyung-Taek Ha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final lesson of the Qohelet and to explore the theological meaning of Ecclesiastes. Qohelet's final lesson (11:9-12:7) is, as the culmination of Ecclesiastes, a summary and synthesis of Ecclesiastes' theology. Qohelet's final lesson is condensed into two imperatives. One is 'to rejoice in the days of youth' and the other is 'to remember the Creator.' The first command is, in other words, a lesson to live a "life of joy." Qohelet emphasizes that the life of joy should be "a way of walking in the ways of the heart and in the sight of the eye" (v. 9). It also emphasizes that such a life of joy is possible when a healthy life is maintained

www.kci.go.kr

by removing the heart of ‘anger’ and eliminating ‘the bad’ from the body (v. 10). The second command is, in other words, a lesson to live a life of walking with God. This life with God is not always allowed. These limits are expressed through the emphatic occurrences of the lexeme “before” three times (vv. 1, 2, 6). The life of remembering the Creator leads us to the life of fearing God with the awareness of the end of life. Qohelet’s final lesson, along with consideration of the statement that ‘all things are vanity’ (12:8), shows what the theology of Ecclesiastes is. The theology of Ecclesiastes can be encapsulated in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theology of doubt and question,” “theology of joy and enjoyment,” and “theology of trust and reverence.”

## Keywords

The final lesson of the qohelet

Theology of ecclesiastes

Theology of doubt and question

Theology of joy and enjoyment

And theology of trust and reverence

- 투고일: 2021년 7월 6일
- 심사일: 2021년 7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8월 17일

[www.kci.go.kr](http://www.kci.go.kr)